



2018년 2월 18일(제863호) 시순 제1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시순, 십자기를 바라보라

지난 ‘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속죄와 참회로 준비하는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 시기는 일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지내는 40일의 시간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해들은 하느님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사순 시기란, ‘은혜로운 회개의 때’임을 가르쳐주며,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하느님께로 향하는 시기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특별히 오늘 독서와 복음의 말씀은 ‘십자가’라는 하느님의 표징을 바라보도록 초대해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본 ‘무지개’라는 징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세례’라는 징표는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라는 표징을 통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십자가를 자주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고통스럽고 침울해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사순 시기를 시작하며, 고개를 들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느님께서 나를 구원해주시리라는 약속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부대·가정·성당 등 각자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순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떠올릴 때마다 짙막하게 화살기도를 바치거나, 마음 속으로 ‘하느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지닌 채 일상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순 시기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회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몸과 마음이 아파 신음하는 이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들, 고통 속에서 절망하는 이들에게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선행 또한 회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작고 보잘것 없는 실천 같아 보이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이러한 실천을 너무나 값지고 커다랗게 바라보실 것입니다. 사순 시기, 내 삶에 다가오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복된 시기 보내십시오.



이재혁(사도요한) 신부
진진(옥론 1사단) 성당 주임

- | | |
|----------------|--|
| 제 1 독 시 | 창세 9,8-15 |
| 회 답 송 | ◎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 |
| 제 2 독 시 | 1베드 3,18-22 |
| 복음 환호송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
| 복 음 | 마르 1,12-15 |
| 영 성 제 송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진리를 살다

예수님이 인간과 얼마나 가까이 계신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 성찬과 같이 인간적이고 뜻이 있는 기초적인 식사 행위를 택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감각으로 무엇인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으로 보고 그것을 내 안에 깊이 받아들여 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청각으로 소리와 음악을 듣고 깊이 감동할 만큼 내안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식사는 가장 강한 섭취 형식입니다. 식사는 전체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은 것은 내 기관의 일부, 내 안에서 동화됩니다. 식사는 사랑 자체와 비유가 되고 모형이 될 만큼 강하고 의미심장한 표지입니다. 식사는 동화의 가장 진한 형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요한 6,56) 예수님의 빵을 먹는 것은 상징적 일치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살’은 생의 수단인 음식이 됩니다. 예수님은 ‘먹는다.’는 아주 생명력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의 ‘음식’이 되십시오으로써 우리와 하나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명 속에 아주 강력하게 살아 계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갈라 2,20)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그 누구도 오랫동안 혼자 살아 갈 수는 없습니다. 혼자서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의 신앙의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주일미사 때 미사에 참여한 사람은 자기 형제의 신앙을 통해서 확증을 체험하고 성찬을 통해서 인간 성숙과 쇄신을 체험합니다. 주일미사가 없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내적 힘의 소모와 마멸에 대한 평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썸을 바칠 필요가 있습니다. 5일 혹은 6일간의 긴장, 노동, 그리고 외향성에 비해 하느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미사와 신자생활

한 주간 168시간 중 1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그렇게 가까운 시간입니까? 우리는 신앙을 위한 최저 생활로 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는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을 보여 주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빵이 되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양식이 되는 삶입니다.

믿는 이들의 삶이 주변 사회에 썩은 냄새를 피워서는 안 됩니다. 자기와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을 경시하거나 내적으로 거절하는 배타적인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버림받은 사람들 편에 있다는 말을 마땅히 들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위탁인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마르 2,17)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사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마음을 단아 버리면, 하느님 사랑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머무를 수 있었겠습니까? 자녀 여러분, 우리는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1요한 3,17-18)

어딘가에 성당이 새로 건축되었습니다. 새 성전 봉헌식 때 제단 위에 그려진 커다란 그림을 덮어 놓은 베일을 벗겼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미완성’ 그리스도상을 보고 무척 실망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머리만 그려져 있지 팔과 다리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의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예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로서는 그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생각해서 이 그림을 완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팔이요, 다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손 외에 다른 손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최창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학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잡지 발췌』

복 음 록 상



- 베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임의 그늘

지침 몸을,
튼튼한 나무기둥
그늘을 찾아 누웠다.
참 잘 쉬고 보니
그 모습이
의의 나무더러.
임의 그늘에서
잘 쉬었습니다.
참 좋은 자리입니다.
잘 쉬었으니,
다시 일어나
갈 길을 가야지요

상화이야기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예수님



작가 미상
12세기경 作, 모자이크 회
신 미르코 성당 벽, 이탈리아 베니스

그 발치에 도망가는 듯이 보이는 악마가 그려져 있다.

12세기에 제작된 이 모자이크화는 예수님을 유혹하는 악마의 이야기를 충실히 재현하고 있다. 마태복음 4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림 왼편부터, 돌을 빵으로 변하게 하라는 악마의 유혹, 두 번째는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밑으로 몸을 던져보라는 유혹, 그리고 세 번째는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가 저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이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예수님을 시중드는 천사들의 모습이 보이며,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이야기의 중요한 점만 뽑아 간략하게 묘사해 놓았는데도, 그 내용 전달이 명확하고 확실하다는 것이다. 이 세가지의 유혹이야말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굴복하는 유혹들이며, 인간의 몸을 하는 이상,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 이상, 우리는 이 유혹들을 거부할 수도, 또 유혹들에 응할 자유가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한 우리의 몫이다.

김은혜(캘리시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시순 제1주일: 필승 이승남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미사
 때·곳: 2월 18일(주일) 11:00
- 가톨릭의료협회 원목자 상임위원회
 때·곳: 2월 21일(수) 16:00, 군중교구청
- 가톨릭의료협회 2018년 정기총회
 때·곳: 2월 23일(금) 11:30, 포항성모병원

◆ 김호사관학교 졸업미사

 때·곳: 2월 19일(월) 18:30, 성루카 성당

◆ 남수단 함빛부대 피병미사

 때·곳: 2월 21일(수) 19:00, 국제평화지원단

◆ 공군사관학교 졸업미사

 때·곳: 2월 22일(목) 18:00, 성무대 성당

“군 복음화, 변함없는 열정으로” - “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